



가와사키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뉴스레터 No. 65

Colors, Future!
いろいろって、未来。
川崎市

편집 · 발행 : 시민문화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19년 3월 26일 발행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shisei/category/60-7-2-0-0-0-0-0-0-0.html>
(간단한 일본어)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2748.html>

<가와사키 시민마츠리에 참가했습니다>

11월 2일 (금) ~ 4일 (일)에 개최된 제 41회 가와사키 시민마츠리의 3일 째에 올해도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멤버들이 참가했습니다. 오프닝 퍼레이드에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참가했습니다. 민족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연도에 모인 시민들에게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면서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를 어필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왔지만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부스를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아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의상체험과 세계의 장난감 · 악기는 특히, 자녀와 같이 오신 분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의 시음코너에서는 시민들에게 세계의 차를 소개하는 등 교류를 깊이 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가하여 시민 여러분과 더 깊은 교류를 하고자 합니다.

(최경심)



오픈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 년도의 오픈회의가 12 월 16 일 (일) 에 나카하라시민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년도는 약 70 명이 참가했고 14 시부터 17 시까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외국인시민이 평소 생활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것과 다문화공생을 위한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6 개의 그룹으로 나눠 참가자들과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을 한 후에는 각 그룹에서 서로 이야기한 것을 차례로 발표하고 끝으로 코멘테이터로 모신 고마자와대학 나카노 유지교수님으로부터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양케트에서는 「그룹워크는 함께 뭔가를 만드는 실감이 들어서 아주 좋았다」 「외국인이 더욱 증가하는 사회로써, 어떻게 공생을 해야하는지는 큰 과제라고 봅니다. 우선은 외국인과 접해 본다.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는 거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참가하고 싶습니다.」 「외국인시민도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의식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시민도 많은 이벤트, 회의, 모임 등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등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교류파티도 개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익한 교류였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픈회의의 소감

이번 오픈회의에서는 대표자 이외의 시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룹 디스커션에서는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셔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받은 귀중한 의견은 앞으로의 심의에 살리고자 합니다. 회의 종료 후, 교류파티에서도 대화 속에서 분위기가 고조되거나 새로운 우정도 생겼습니다. 이번 오픈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분에게도 평소에 열리는 우리 대표자회의를 방청하거나 시의 이벤트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주길 바랍니다 .

(오오고시 밀톤 토미오)

《부회 심의 보고》

◆정보·홍보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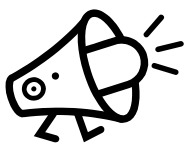
정보·홍보부회에서는 ①정보·상담 ②기업, 일본어학교 등을 통한 가와사키시가 하고 있는 홍보·주지 ③외국인관광객 대상의 방재정보, 3개의 심의 테마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정보·홍보부회에서는 ①정보·상담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에서는 이미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한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정보·상담이라는 큰 테마를 의논하기 위해서 논점 정리를 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방재, 병원 등)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에 외국인시민이 확실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논의를 깊이 하고자 합니다.

정보·홍보부회 부회장 최경심

◆교육·취업부회

교육·취업부회에서는 ①학교에서의 아동을 위한 일본어지원 ②다문화·국제이해교육 ③취업지원, 3개의 심의 테마를 다룹니다. 지금까지 교육·취업부회에서는 ①학교에서의 아동을 위한 일본어지원에 대해서 심의했습니다. 심의에서는 ①가와사키시에는 이미 일본어지도 등 협력자 파견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②근년, 외국과 관계가 있는 아동, 특히 일본어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 ③그 결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실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각의 테마에 대해서 심의를 더하여 좋은 제언으로 이어지도록 모두가 힘을 합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취업부회 부회장 우라코바 마하뵈



회의를 방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 2019 년도의 회의 일정 —

장소 :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도큐토요코센·메구로센 「모토스미요시역」에서 도보 약 10분)

약도 : <http://www.kian.or.jp/accessmap.shtml>

시간 :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 1 회】

제 1 일 4월 21일 (일)

제 2 일 5월 19일 (일)

【제 2 회】

제 1 일 6월 16일 (일)

제 2 일 9월 8일 (일)

【제 3 회】

제 1 일 10월 13일 (일)

제 2 일 12월 8일 (일)

【제 4 회】

제 1 일 1월 19일 (일)

제 2 일 2월 9일 (일)

회의는 누구라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회의를 꼭 보러 오세요!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저의 일본어는 완벽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항상 일본어로 말을 걸려고 합니다. 많은 일본인은 천천히 말해 주거나 간단한 일본어로 다시 물어 주기 때문에 회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제가 영어로 말을 걸면 걱정해서 패닉상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중에도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짧은 단어, 제스처로도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로만다 데이빗)



외국인시민을 위한 다언어정보

가와사키시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에게
—외국인시민을 위한 주로 행정서비스와 문의처 일람

「가와사키시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에게」는 외국인시민을 대상으로 주로 행정서비스와 문의처를 모은 팸플릿입니다. 「긴급상황」, 「주민등록·재류제도」, 「사회보험·연금」, 「복지와 건강」, 「교육·문화」, 「생활과 상담」 등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각각의 문의처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
조선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다갈로그어, 베트남어의 8개 국어로 적혀있어서 일본어가 어려운 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팸플릿은 각 구의 구청, 시민관, 국제교류센터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9029.html>

가와사키시의 다언어 홍보자료 일람

가와사키시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자의 발음표기(후리가나)가 있는 일본어」 「간단한 일본어」 「다언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시의 다언어 홍보자료 일람」은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가를 종합하여 만든 것입니다.



<http://www.city.kawasaki.jp/250/page/0000046133.html>

<문의>

가와사키시 시민문화국 인권·남녀공동참여실
〒 210-000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에키마에혼쵸 11-2 가와사키후론티아빌딩 9층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나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